

2026 스토리텔링 공모전 1차 심사 통과작

제 목	현장을 뛰지 못해도, 현장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p>건설과 건축을 말하면 사람들은 먼저 “몸을 쓰는 일”을 떠올린다. 헬멧, 안전화, 콘크리트 먼지, 비계와 크레인.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어려운 분야”라고 결론을 내린다.</p> <p>나는 그 결론의 반대편에서 살아왔다. 나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고, 동시에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건설·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직장인이다. 현장에 매일 나가지 못하는 날이 있다. 그런데도 나는 내 방식으로 현장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어다닌다’.</p> <p>내가 뛰어다니는 현장은 머릿속에 있다. 도면 한 장을 펼치면, 나는 그 선들을 따라 걸으며 공정의 흐름을 시뮬레이션한다. “이 순서면 자재 동선이 꼬인다.” “여기서 작업자가 동시에 겹치면 위험하다.” “이 단계에서 임시 고정기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선 하나를 바꾸고, 순서를 바꾸고, 자재 반입 계획을 조정한다.</p> <p>나는 독학으로 오토캐드(AutoCAD)를 익혔다. 단순히 ‘그릴 줄 안다’가 아니라, 현장과 공정을 이해하는 언어로 도면을 만들기 위해 매일 반복했다. 그 결과 도면은 내 업무의 결과물이 아니라, 현장의 안전과 효율을 끌어올리는 장치가 되었다.</p> <p>내가 만드는 도면과 공정 계획이 목표로 하는 것은 분명하다. 비장애인 작업자가 최대한 위험하지 않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굴러가게 하는 것. 건설 현장의 위험은 ‘큰 사고’로만 오지 않는다. 작업 동선의 충돌, 자재의 중복 이동, 일정의 꼬임, 무리한 야간 작업, 의사소통의 누락이 쌓여 사고가 된다. 책상 앞에서 하는 설계·견적·관리 업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누적을 줄이는 데 있다.</p> <p>장애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이 건설·건축에서 할 수 있는 일도 한 가지가 아니다. 흔히 장애를 떠올릴 때 특정 이미지로 단순화하지만, 현실의 일은 훨씬 더 분업적이고 정교하다. 나는 현장에서 못 하는 일을 한탄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깊게 파고들었다.</p> <p>견적, 자재 납품 관리, 계약 관리, 인허가 관리, 공정의 연결과 조정. 이런 일들은 책상 앞에서 할 수 있지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영역에서의 실수가 현장을 멈추게 하고 손실을 키운다. 나는 회사의 수익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프로젝트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꼼꼼하게 일한다. 요즘 들어 스카웃 제의가 종종 들어오는 것도, 내가 “장애를 극복했다”는 서사 때문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p> <p>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치열해졌다. 몸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그 빈자리를 ‘대충’으로 메울 수 없었다. 대신 나는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가정하고, 한 번 더 시나리오를 돌렸다. 현장에 내 발이 닿지 못하는 날이 있더라도, 도면 위에서는 내 시선이 더 멀리 간다. 집중이 필요한 일에는 집중할 수 있는 자리와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 어떤 산업이든 현장만이 전부가 아니듯, 건설·건축도 마찬가지다. 설계와 공정, 계약과 인허가, 자재와</p>	

납기, 리스크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붙잡고 정리하는 사람은 필요하다. 나는 그 역할로 현장을 돕는다. 내가 줄이고 싶은 것은 나의 불편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누군가의 위험이다.

내게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다. 나는 세 아이를 키우는 다자녀 부모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장애'라는 단어를 새롭게 배우게 만든 사건이 있다. 내 아이 중 한 명은 뇌장 기능과 관련된 질환(예: 1형 당뇨 등)으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는 신설되는 뇌장장애 요건에 해당되어 7월 장애등록을 앞두고 있다.

부모로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그러나 곧 생각이 바뀌었다. 장애는 삶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딱지가 아니라, 삶이 계속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사회가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배우고 일하고 살아가길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가 함께 움직이는 일상이다.

그래서 나는 장애인 고용을 말할 때, "선의"보다 "설계"를 먼저 떠올린다. 장애인 고용은 시혜가 아니라 조직이 인재를 놓치지 않는 방식이고, 업무를 사람의 다양한 조건에 맞게 재설계하는 경영의 기술이다. 건설·건축 같은 산업일수록 더 그렇다. 안전과 효율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온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공정과 협업을 설계하면, 그 시스템은 결국 모든 사람을 살린다. 돌봄이 있는 직원, 건강 이슈가 있는 직원, 초보자, 고령의 근로자, 그리고 미래세대의 노동자들까지. 나와 내 아이의 미래는 분리되지 않는다. 오늘의 일터가 바뀌지 않으면, 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같은 벽을 만날 것이다.

나는 현장에 매일 서지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나는 내 자리에서 현장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선을 바꾸고, 순서를 바꾸고, 위험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줄인다.

건설과 건축은 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설계·관리·조정이라는 또 다른 '현장'이 있고, 그 현장은 장애인에게도 열려 있다. 장애인 고용을 통해 얻는 것은 동정의 만족이 아니라, 조직의 성과와 안전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너는 사회의 밖이 아니라 안에서 일할 수 있다"는 가장 현실적인 배려가 된다.

내 아이가 언젠가 "아빠,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라고 묻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나는 말하고 싶다. "너는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느냐'를 묻는 사람으로 자라면 된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일터에서 필요한 것은 특별 대우가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합리적인 조건**이다. 그리고 그 조건을 만드는 회사는 결국 더 강해진다.

나는 오늘도 도면 위에서 현장을 뛰어다닌다. 내 아이가 미래의 일터에서 불필요한 벽을 만나지 않도록, 지금의 일터가 조금 더 정교해지도록. **사람의 조건이 달라도 일이 굴러가게 만드는 설계**, 그게 내가 믿는 장애인 고용의 의미다. 그리고 그 설계는,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이다.